

우리 모임에선

석불선양회 기우제



한국석불선양회는 3일 제14차 석불전건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충남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과 신현리 석조미륵불입상을 전경하는 순례에 동참한 68명의 불자들은 불상 주변 청소와 법회를 봉행하고 기우제도 지냈다.

한빛 천마재활원 봉사

한빛은행 부산분회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암남동 천마재활원을 방문해 정기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10여 명의 회원들은 천마재활원의 화장실과 식당, 숙소, 유리창 등을 청소하며 100여 명의 지적부자유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하불동 사찰순례

하이텔 불교동우회 강원모임은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전통 사찰 심원사와 도피안사를 방문해 6월 정기순례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순례법회는 108배, 정근,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산반야회 육바라밀 법회



동산반야회는 3일 육바라밀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입재식에는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훈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보살이 될 것을 서원했다. 육바라밀 대법회는 10일까지 계속되며, 이날 성문사 조실 청화스님을 전제회장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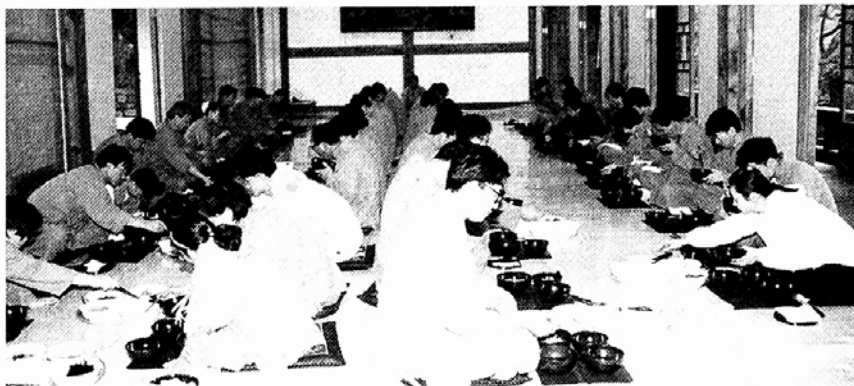
교정인연합회 자혜원 봉사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는 5월 20일 대전 자혜원을 방문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어린 원생들을 위로했다. 이날 충청지부는 '불교를 사랑하는 모임(LMB)'를 초청해 원생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합동법회도 봉행했다.

# 언론사 불자회 결성 '파란불'

### 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 등 추진...30일 연수회서 구체화

백백한 근무일정으로 불자들의 모임 자체가 어려운 언론계에서 불자회 결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20여 방송, 중앙일간신문사 가운데 불자회가 있는 곳은 KBS, MBC, SBS, 경향신문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불자회를 만들기 어려운 일터가 바로 언론사 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교원이 30일 법주사에서 개최할 제2회 방송, 언론인 연수회를 준비하며 불자회 결성을 유도해 그 결과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마곡사에서 개최된 조계종 포교원의 '제1회 방송 언론인 연수'에서 불자언론인들이 공감하는 모습.

해도 사내 불자들이 모여 수덕사를 방문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 그 명맥마저 끊어진 상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백 팀장은 "친목도모를 통한 불자회 회원 늘이기에 노력하고, 정기법회와 불교공부도 꾸준히 진행해 사내 불자들의 신명 생활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불자회 창립 이후의 포부를 말했다. 이외에도 포교원은 한겨레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불자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 과도 접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포교원이 언론사 불자회 창립에 나선 것은, 언론계가 불자회 결성의 사각지대라는 자체

평가 외에도 언론사 불자회가 늘 어날수록 방송이나 언론에서의 종교편향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사 이비즈니스본부 김대관 국장은 "각 언론사 마다 적잖은 불자들이 있지만, 각자의 일로 바쁘고 또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불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 불자회 결성에 포교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론사 내 불자 스스로 불자회를 결성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사에도 10여 명 남짓한 불자들이 있지만 불자

회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포교원은 "언론사 불자회 결성은 최종적으로 '언론인 불자연합회' (가칭)의 창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방송, 언론인 연수'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방송, 언론인 연수'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종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공중파 및 일간지에 근무하는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다. 포교원은 이번 연수회에서 '법회 활성화', '미정립 언론사 불자회 창립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난지도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는 꽃과 나무를 찾는 두레생태기행 환경답사자들 모습.

## 꽃동산으로 변한 난지도

### "어머! 패랭이꽃 피었네"

#### 두레생태기행 환경답사

#### 골프장건설 반대 결의

"이 꽃을 보세요. 토종식물인 패랭이꽃이네요. 그 옆에는 귀화식물인 개망초가 있네요."

1978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여 거대한 산으로 변한 난지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짜여진 맹공이 팀 팀장인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매립장 경사면에 꽃밭을 이루고 있는 꽃나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바쁘다.

두레생태기행이 6일 난지도에서 '자연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난지도'를 주제로 생태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일일강사인 김병연(식물학 박사, 김정환(고려공중연구원 소장), 김태우(농업과학기술원 연구원)씨를 비롯하여 200여 명의 참

가자들은 난지도의 자연생태기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꽃과 나무인 지렁이, 패랭이꽃, 조팝나무, 버드나무 등과 귀화식물이 서로 공생하는 생태환경을 확인했다.

이러 난지도 정상에서 새생명심기 프로그램으로 토종 목화씨를 심고, 연날리기를 하며 골프장 건설 반대편지를 다졌다.

김재일 회장은 "난지도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현재의 생태계는 모두 말살된다"며 "인간 생태계와 함께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레생태기행은 14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교계 생태기행의 효시인 두레생태기행은 1991년 창립한 뒤, 총 103회에 걸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탐사를 전개해왔다. 김원우 기자

## "27년 5개월 정진 꼭 이루자"

#### 만일염불결사회 1돌 법회



현대사회에서의 올바른 불교신앙과 새로운 수행방향을 제시하고자 결성된 '만일염불결사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6일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성남 청계산 정토사 극락전에서 봉행된 기념법회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 스님, 대한불교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등 7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녹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만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수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자 뜻 깊은 일"이라며 만일염불결사회원들을 격려하고, "잡다한 염불행자로 거듭나 바른불교가 무엇인지를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5일 밤부터 철야염불정진법회를 봉행한 만일염불결사회는 6일 오후 염불행자 수계식을 거행하며 불제자로서의 소명을 다 할 것을 서원했다.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은 수계식 계사로 참석해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6일 입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10월 22일에 회향하는 청계산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는, 현재 동참자들의 수가 750여 명으로 증가해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종욱 기자

### 게시판

#### 알림

▲입시백일기도 입재=서울 중랑구 법장사(주지 퇴환)는 21일 오전 11시 입시생을 위한 1차 입시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입시백일기도는 9월 28일까지 계속된다. (02)971-0303

▲불자사모임결성=능인선원은 중, 고등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 및 강북지역 중·고교 선생님들의 모임을 결성한다. 모임은 능인선원 주말법회 후 모임을 운영한다. (02)577-5800

▲건양대병원, 법당 개원=대전 건양대학교 종합병원은 5월 31일 병원 내 법당(사진)을 개원했다.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법당은 20여 평 규모로 약



사여래부처님이 봉안됐다. (042)600-9114

#### 강좌

▲불교영어=능인선원은 18-22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원 종교학회장 데이빗 주넷가 박사의 불교 강좌를 마련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현대 미국 불교 및 세계불교'이다. (02)577-5800

▲불교문화=경산조계창 불자회

'금강'은 서예, 서각, 한문 교양강좌를 마련했다. 서예, 서각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를 김난영(계명대 서예과 강사) 씨가 맡았다. 또한 한문강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10분에 <논어집주>를 교재로 진행된다. (053)810-0272

#### 모집

▲강화답사 참가자=답사모임 터사랑은 '동막갯벌 체험과 강화 찾아가기' 답사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이번 답사의 일정은 동막해수욕장 갯벌 탐사→부근리 고인돌→고려궁지이다. 참가비는 38,000원. (02)725-1284

▲문화·건강 강좌 수강생=양정청

소년수련관은 문화 및 건강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에는 생활한문, 한국무용, 가야금, 장구 등 13개 과목이 개설됐다. 수시 모집. (051)868-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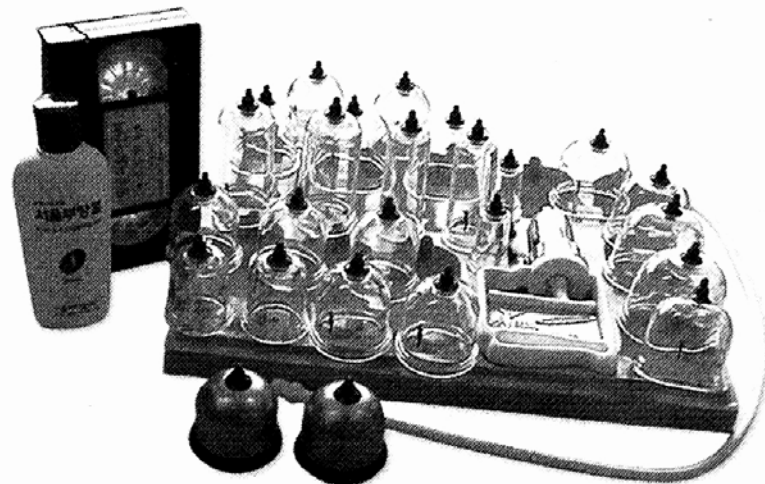
▲통신강원 수강생=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은 강원 및 교양코스 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원코스에는 사미, 사지, 사교, 의전과 등이 개설됐고, 교양코스에는 교리, 경전 강독, 의식, 불교사 등이 개설됐다. 수시모집. (031)527-1957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6시  
☎ 021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1722-4162

#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